

이사장의 중책을 맡으며...



오진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www.kcca.or.kr kcca01@empal.com

1. 제 11대(9기) 이사장 취임에 부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최근 골판지포장업계에는 제지를 소유한 일관 골판지포장기업의 골판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질서 재편 문제를 포함한 구조조정기라는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골판지포장기업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의 밑그림을 그려 달라는 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업적이 매우 큰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맡게 된 중책이라 조합과 골판지포장업계를 어떻게 견인해야할지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조합원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골판지포장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연구중심 조합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2. 골판지포장 산업의 자부심

우리 골판지포장산업계에서 유일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골판지포장은 다양한 포장소재 중 최다 사용되어 포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외부포장을 하는데 활용됨으로서 높은 하중을 견디는 탁월한 내압축강도 기능과 골심지의 골에 의한 완충성으로 피포장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물류합리화 및 포장표준화의 핵심적 소재이며 회수된 폐지 등으로 95%이상을 재활용하고, 폐기 시에도 자연 분해되는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한 경제적인 포장소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골판지포장산업은 이미 2조원대의 시장규모로 세계 10위권의 시장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종이 생산량의 34.1%로 국내 최대 생산지종으로 제지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급격한 구조 조정기를 맞는 골판지포장 산업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생산형태는 골판지원지를 직접 제조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갖는 기업이 2개사, 골판지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업체는 123개사가 국내에 있으며, 골판지를 구입하여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지합기업은 전국적으로 1,50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한 구조조정이라는 파고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여 국민대학교에서 발표한 골판지포장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골판지원지와 계열관계를 갖는 골판지포장기업은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2004년도 46.1%에서 2005년도는 전년대비 6.3%p 상승하여 일관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년벽두부터 일관기업의 전문기업 인수합병 소식이 무성하게 들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만, 저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시장 도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장이 정체된 성숙된 시장에서는 건전한 시장 시스템을 앞당기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일관기업의 무분별한 점유율 경쟁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일관기업이 원자재 생산 공급권을 무기로 인위적인 가격 설정과 생산 조절을 통해 전문기업들의 경쟁력 해체를 유도한다면 건전한 시장질서에 매우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종업계의 경쟁회사는 배척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여 상생해야할 동반자라는 것이 보다 옳은 이유는, 함께하는 것이 글로벌화된 기업 환경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 수단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영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위험회피 및 상호 시너지를 발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중소기업형이라는 태생적 한계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지만, 상식과 협력이 녹아있는 경쟁관계를 만드는 것이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옳은 방안입니다.

4. 골판지포장 적정 생산능력 및 경쟁완화 대책

골판지포장업계는 37.1%의 초과잉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오래전에 수급균형이 무너져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업계의 경쟁요소가 가격 일변도 확장경쟁으로 흐르게 만들고,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을 실현할 투자여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에는 저임 구조 고착으로 종사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및 인력양성 미흡이라는 결과를 낳게 함으로서 잠재 성장 동력을 훼손시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포장 농산물의 골판지포장화 및 농산물포장의 소포장화, 그리고 FF골판지 등 Microflute 골판지 사용 확대로 타포장재시장 대체 등 신규수요 창

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골판지 개발을 통한 품질, 기술 경쟁 체제를 정착 시키고, 셋째, 노후설비의 폐기 처리 및 해외이전을 통한 생산 능력 조절 문제가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사장으로서 주력해야할 과제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과제의 해결 방책으로 조합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업계간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원지, 지합업계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업계간 상생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여 갈등요소를 사전에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골판지포장기업 최고경영자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신뢰와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골판지포장산업 정책조정 및 정보 수집분야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조합은 업계 관련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던 역량을 보여 왔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고유업종의 사후관리 및 사업조정분야에서 업계의 요구를 해결해 왔었으며, 농협골판지공장의 부가세 면제로 불공정 경쟁이 있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하여 농산물골판지상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관철시키고, 골판지용 옥수수전분의 수입쿼터 추천기관 지정으

로 국내전분업계의 과점 구도 완화와 농림부의 배추,무 포장화 시책을 적극 유도하여 시책으로 이끌어낸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금년들어서는 새로운 정책과제로 합성수지제 배추 포장재의 국고지원은 정부의 환경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골판지배추사용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는 골판지포장업계에서 사용하는 옥수수전분 전량을 수입쿼터물량으로 확보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골판지단체와 협력체제 강화하여 급변하는 해외 골판지원부자재 수급 동향을 분석 가공하여 업계와 공유시킬 계획입니다.

셋째, 연구 중심 조합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신기술 개발 등을 국책과제로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화 추세를 선도하는 조합이 되도록 하며, 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판매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원부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동구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 설립과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지원 및 검사성적서 발급 업무를 확대하여, 공인시험기관 인증(KORAS)을 획득하여 골판지포장시험원을 설립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